아픈 애들은 '오픈런'…의사는 "홀로 36시간 진료"

멸종위기 소아과

전반기 소청과 전공의 모집 결과 15.9%로 역대 최저
야간당직 다음날 외래진료 이어지며 업무부담 늘어
수도권·지방 모두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 뚜렷
소청과 의료진 부족은 결국 환자도 피해입는 구조

부산의 한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 그는 외래진료를 보는 전문의지만 전공의가 부족해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전문의들도 야간 당직 순번에 포함됐다. 전날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 날 평소와 똑같이 외래진료를 보는 것은 베테랑인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충청지역 대학병원 가운데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새로운 인력 충원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4곳은 올해 상반기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 내달 말 대전에 문을 여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소청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청과 의료진 부족으로 외래 진료만 이뤄지거나 아예 진료를 중단하는 종합병원이 늘고 있다.

지난 연말 마감된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소청과는 역대 최저인 15.9%를 기록했다. 문제는 소청과 의료진 부족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경북 지역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최희정 교수는 "동산병원은 지난해부터 3~4명의 신생아 분과 전문의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당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3월이 되면 4년차가 되는 전공의 4명이 전부다. 1~3년차가 없는 상황으로 응급실은 축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인 가천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소청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 2020년부터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여파다. 이달 인천성모병원도 소청과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 서울 내 종합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삼성서울병원 소청과는 모집 정원 6명 중 3명, 서울대병원은 14명 중 10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3명 중 1명이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1명 모집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서울아산병원만 8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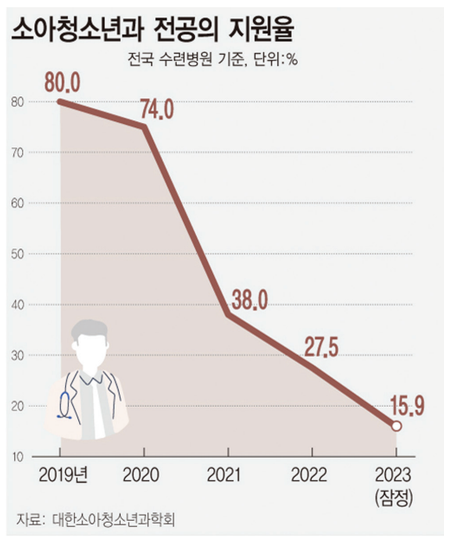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청과에 남아있는 전공의, 전문의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응급실 소아과 전공의가 2년차 2명에서 1년차 1명으로 줄었다"며 "야간 근무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암 등 중증 질환을 다루는 세부 진료 과목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는 "강원도, 경북은 소아암 진료의사가 0명이고, 충북, 광주, 제주, 울산은 1명으로 입원치료 불가능하다"며 "50대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 당직서고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11월 현재 소아청소년암 치료에 종사 중인 전문의들은 67명이며, 이들 가운데 5~10년 사이 절반 정도가 은퇴 예정이다. 결국 환자와 의료진 수의 불균형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우선 치료 시기가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김 부교수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시행한 건강보험공단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중 70%가 대부분 서울 및 경기에서 치료받고, 치료 기간만 2~3년"이라며 "그동안 환자 가족은 치료비, 주거비 등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가족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도 우리와 같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소청과 의료진 부족을 먼저 겪었다. 일본이 겪은 심각성은 드라마 소재로 활용될 정도였다. 지난 2008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체인지'가 대표적이다. 한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인 일본 총리는 소청과 의사 부족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대책 예산 300억엔을 책정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실제로 일본은 정부 예산을 들여 소청과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했다. 일본은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했을 때 3세 미만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 넘는 수가 가산을 인정한다. 6세 미만의 경우는 50%를 가산한다. 저출산으로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의미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관계자는 "현재의 체계로는 소청과 의료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며 "줄어드는 세부 진료 과목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씨 마른 전공의… "고된 일에 보상 적고 맨날 소송"

저출산·저수가에 코로나19로 진료량 급감
출산장려책에 치중 실효성 있는 정책 부재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사 구인난은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됐다. 특히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효과가 미미한 출산 장려책에 치중하면서 어린이 의료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2002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후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소청과는 직격탄을 맞았다. 어린이 환자 수가 줄면서 개원이 어려워졌고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저출산 현상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소청과 의사들"이라면서 "돌 전후 아기들은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이 감소해 발열, 기침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고 예방접종도 많아 소청과를 가장 많이 방문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까다로워 의료 소송 리스크가 큰 반면 진료비는 낮은 것도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일은 고되고 힘든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어릴수록 보채고 몸집도 작아서 경험이 없으면 진찰은 물론 채혈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면서 "자칫 채혈이나 진정 치료 중 사망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린이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손해배상금이 보통 10억 정도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희정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 심장 전문의)는 "어린이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성인 대비 2~3배 이상인데 수가는 낮다"면서 "보통 어린이 입원 환자 1명은 성인 2~3명을 진료하는 것과 맞먹어 업무강도가 훨씬 센데 생활의 질은 낮아 전공의들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 중환자 진료는 고난이도, 고강도, 고위험 업무여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분야다. 소아 중환자 진료가 24시간 가능하려면 소아 중환자를 전담하는 5~7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청과 전공의 지원 감소에 따른 전문의 부족, 근무여건 악화, 기존 전문의 이탈 등으로 소아 중환자 진료는 붕괴 상태다.

조중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소아 중환자 의사 부족은)응급·중증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에너지 소진, 소송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면서 "그나마 소아중환자 전담의사가 있는 병원은 사정이 조금 낫지만, 이마저도 없는 경우 전문질환군 전문의가 중환자실 진료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정책이사)는 "소아암 환자들에게는 채혈이나 혈관주사 등 각종 시술이 어렵고 응급·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해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면서 "또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약 15%의 환자는 재발과 합병증으로 숨져 상실감을 느끼기 쉽고 의료 소송이라도 걸리면 견디기 쉽지 않다"고 했다.

만성화된 낮은 진료비도 소청과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주요인 중 하나다. 소청과 진료비는 모든 진료과 중 가장 낮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의원)만 놓고 봐도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7611원으로 전체 15개 진료과 중 가장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봐도 같은 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청과 병·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총 5134억 원으로 가장 작다. 저출산 여파로 환자가 줄면서 오히려 10년새 약 25% 감소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 진료비는 30년 동안 거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진료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진 대만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가 3년가량 지속되면서 전국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올해 상반기 15.9%로 급락했다. 낮은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진료로 버텨오다가 코로나19로 진료량마저 급감하면서 미래가 어둡다고 느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

어린이 중환자를 돌보는 서울의 B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어린이 응급 의료는 고사 직전인데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말 뿐 정작 재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출산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도 실패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전문센터 전담 전문의를 팀당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재정도 1억 원을 늘린 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 부교수는 "소아암 완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소아암은 '암 정책'에도, '소아청소년과 질환 정책'에도, '희귀질환 정책'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깍두기 신세"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장려할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